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2돐에 즈음하여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각하

최고령도자이신 원수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각하께와 조선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장수하시길과 아울러 친근하고 영웅적인 조선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캄보디아왕국 우리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오랜 기간 존재하여온 친선과 우호의紐帶는 더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나는 각하께 다시 한번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최고령도자이신 원수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캄보디아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
2010년 9월 1일 프놈펜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령도자각하

나는 귀 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당신께 전체 민족과 인민과 나 자신의 이름으로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당신께 우리 두 나라를 연결시키는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지를 표명합니다.
위원장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공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조제프 까빌라 까방게
2010년 9월 3일 킨샤사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원수각하

각하
나는 2010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을 맞이하는 중요한 계기에 즈음하여 파키스탄인민과 정부의 이름으로 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호상 유익한 쌍무관계를 가지고 협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관계가 앞으로 계속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길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아씨프 알리 자르다리
2010년 9월 4일 이슬라마바드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 김정일각하

나는 친선적인 조선인민의 공화국창건일을 맞으며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와 축복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귀국인민에게 끊임 없는 발전과 복리,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에멘공화국 대통령 알리 아브둘라흐 살레흐
2010년 9월 5일 사나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각하

각하
나는 경사스럽고 뜻깊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이 되는 2010년 9월 9일을 맞으며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귀국 정부와 인민에게 친선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두 나라는 훌륭한 쌍무관계를 발전시켜왔을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공동의 견해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왔습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에 그토록 훌륭히 존재하는 친근한 형제적관계가 계속 강화되기를 열렬히 희망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대통령 무라크 추사령관 군라크 에벨레 요나란
2010년 9월 6일 아부자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각하

존경하는 위원장각하
나는 귀국의 민족적명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에 즈음하여 당신께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성과를 거두실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행복과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브
2010년 9월 6일 따슈켄트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

친애하는 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라오스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정부와 전체 형제적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와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친선적인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끊임없이 발전하여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협조개발사업에 기여하고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경사스러운 기회에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형제적조선인민이 조국보위와 건설사업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로선에 따라 의세의 간섭이 없이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위업 수행에서 보다 큰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쯤말리 싸이나손
2010년 9월 7일 비엔티안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

각하
나는 경사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각하께와 그리고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나의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에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공고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지속적인 평화와 진보, 번영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대통령 질루르 라흐만
2010년 9월 7일 다카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에 즈음하여 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베팔대통령 박사 람 바란 야다브
2010년 9월 9일 까뜨만두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존경하는 김정일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몽골 인민과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몽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에 친선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확대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존경하는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나라의 통일번영을 위한 친선적인 조선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몽골 대통령 짜히야긴 엘베그도르쥬
2010년 9월 9일 울란바타르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벨라루스인민과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귀국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벨라루스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에 친선관계와 건설적인 협조가 우리 두 나라의 가일층의 번영을 촉진 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각하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성과를 거두실것과 조선인민에게 평화와 복리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벨라루스공화국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2010년 9월 9일 민스크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각하

각하
민족적명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우크라이나인민과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각하
나는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책임적인 국가활동에서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하며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우크라이나대통령 빅토르 야누쎌비치
2010년 9월 9일 까예브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전술, 탁월한 령군술에 대하여 깊이 체득하고있는 감사자들
—귀수물동혁명전적지에서— 리진명 찍음

선군혁명경도의 나날에

크나큰높은 믿음, 평가
(주제 97) 2008년 5월 어느날 장군님께서는 이이 부대의 임무수행형용을 로해하신 부대에서 작전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준비하게 되며 모든 지휘성원들을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능숙히 조직지휘할 수 있는 높은 작전전투조직과 지휘능력을 갖춘 유능한 지휘관들로 준비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혁명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훈련을 잘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훈련에 모든 열정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오늘 선군시대 군인들의 정치사상적품성과 투쟁기풍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 군대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었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용하신으로 만장약권이 위대한 무적강군의 힘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인제인가 장군님께서는 민군대의 어느 한 축산기지를 찾으시였을 때 부대에서는 염소와 토끼를 비롯한 풀먹는 짐짐승을 대적으로 길러 군인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우유 제품을 생산하여 먹일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많이 기록하고, 이 사업을 현대적인 염소목장과 토끼목장을 건설하고 축산물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대에서 축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군인들의 식생활 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전투력강화와 후방사업개선을 위해 많은 일을 해놓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어디서나 염소, 토끼를 비롯한 풀먹는 짐짐승을 많이 기를수 있다고, 이 사업을 진군중적으로 더욱 힘있게 벌려 축산물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축산기지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는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토끼목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능력도 확장하여 많은 토끼고기를 생산하여 군인들에게 공급하고있다고 거듭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인민군군인의 식생활문제에 보다 윤곽적 힘을 주는 밝은 전망을 확실성있게 내다보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리금분

향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그는 언제나 사령관동지의 명령집행에 충실하였다

(오중흡 동지를 회상하여)

오중흡 동지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벌떡 일어났다. 우리 모두가 따라 일어났다.
《불과 1개 중대의 력량밖에 없는 사령부 로출되어 적들의 포구에 들수도 있고, 동무들,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해야 하오. 오중흡 동지의 이 말은 우리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다. 우리는 서둘러 출발준비를 갖추고 밤새 강행군을 계속하였다. 사령부의 안전을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이 놀라운 힘을 내게 하였다. 생각하면 명령없이 함부로 부대를 움직이겠다고 나무랄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령부의 안전을 생각할 때 반드시 명령을 기다려서만 행동할수는 없었던것이다.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며 용감히 투쟁하는것이 바로 혁명전사의 기풍이라고 생각한 오중흡 동지는 결단성있게 행동하였다. 후에 안 이지만 사령관동지께서는 그간 경위중대와 기관총소대를 인출하시고 화강주 오지에서 맹활동을 전개하여 적의 《토벌》을 격파하고 남들이 그러 못했던 특이 야산지대로 부대를 이동시키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가세수물방아 간군에서 부대를 휴식시키신 다음 그곳을 떠나서 13도만을 공격하시었던것이다. 3면으로 계속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살려 앞으로 백전백승의 위용을 떨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이어 부대의 임무수행형용을 로해하신 부대에서 작전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준비하게 되며 모든 지휘성원들을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능숙히 조직지휘할 수 있는 높은 작전전투조직과 지휘능력을 갖춘 유능한 지휘관들로 준비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혁명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훈련을 잘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훈련에 모든 열정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오늘 선군시대 군인들의 정치사상적품성과 투쟁기풍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 군대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었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용하신으로 만장약권이 위대한 무적강군의 힘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인제인가 장군님께서는 민군대의 어느 한 축산기지를 찾으시였을 때 부대에서는 염소와 토끼를 비롯한 풀먹는 짐짐승을 대적으로 길러 군인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우유 제품을 생산하여 먹일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많이 기록하고, 이 사업을 진군중적으로 더욱 힘있게 벌려 축산물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축산기지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는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토끼목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능력도 확장하여 많은 토끼고기를 생산하여 군인들에게 공급하고있다고 거듭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인민군군인의 식생활문제에 보다 윤곽적 힘을 주는 밝은 전망을 확실성있게 내다보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리금분

지상에서는 수십마리의 군견을 앞세운 적들이 미친듯이 달려들면서 우리에게 잡시의 힘 토티도 주지 않았고 발악했다.
명에서 하늘에서 끊임없이 달려드는 대적을 죽이고는 끌고가고 끌고가다가는 또 죽이면서 상강주오도 행군하던 그때의 끈반을 어쩌 한 말과 글로도 다 표현할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오히려 적들이 떨어질세라 끈적거리고 끌면서 때로는 호되게 죽여버렸다. 오중흡 동지는 시종일관 허리까지 치는 눈을 해치며 길을 내는 대렬에 한 행군을 달로나 계속한 끝에 우리 편대는 마침내 적의 주력을 달려나가며 그야말로 초인간적인 힘으로 편대의 전투를 지휘하였다. 《우리는 지금 가장 끈다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적과 싸우고있다. 그러나 우리가 끈다하고 하여 여기서 적들을 때려버린다면 결과는 사령부에 능들이 집중되게 될것이다. 아무리 끈다하고 한들 우리가 어찌 이것을 허용할수 있겠소.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로 이것을 허용할수는 없소. 동무들, 사령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두 기운을 낸시다.》 그의 한마디한마디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격동시켰다. 오중흡 동지의 말은 어떠한 명령보다도 더 큰 힘을 날게 하였다. 여기서 힘이 솟았던지 우리는 모두 벌떡 일어났다. 하늘에서는 적비행기가 돌아치고

자립적기계공업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는 대기계제작기지

통성기계련합기업소 선군주철공장과 선군압축기직장을 돌아보고

지난 8월 중순 통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서 새로 건설된 선군주철공장과 선군압축기직장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 나라의 위대한 대상설비생산기지로 강화발전되어온 대기계제작기지에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지도로 새 시대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현대적인 주물공장과 압축기생산공정이 일떠섬으로써 기업소의 생산태도와 잠재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기업소는 우리의 주체공업을 떠받치는 자립적기계공업기지의 면모를 더욱 완비하게 되었다.

전변의 새 모습을 펼친 일러

우리는 지금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었던 그날의 영광을 안고 증산의 동물을 높이 울리고 있는 로동자들의 열정넘친 모습이 한눈에 안겨오는 선군주철공장 현장의 르데에 서있다. 한눈에 다 안겨오는 너무도 거창하고 웅장한 창조물이 우리의 마음에 펼쳐져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경제각계에서 치달리는 내 조국의 기상을 높이 떨치며 불과 2~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동해의 대기계제작기지에 우뚝 솟아오른 선군주철공장, 다시한번 그 이름을 되새기느니라 우리의 가슴에 안겨온다. 지난 5월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는 위력한 대상설비생산기지입니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는 우리나라 중공업의 열골의 하나라고 하며 최근 10여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기업소를 찾고 또 찾아온 경애하는 장군님, 오실 때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기초적인것부터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품을 들여 하나하나 마련해주시던 현대적인 주물공정과 압축기생산공정이다. 열마진 기업소를 찾은 우리는 이곳 생산현장들을 돌아보며 나날이 더욱 번모되는 대기계제작기지의 전변상을 뜨겁게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 삼복의 무더위속에서 또다시 이곳을 찾오시어 거듭 거듭 땀이 맺히며 통성의 로동자들이 정밀 큰일을 하겠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안신 영상이.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내 나라, 내 조국땅에서 이런이 일어나는 변들이 어떻게 마련되는가를 입성속에서 새기며 우리는 기업소부지배인 전장남동무와 함께 현대화된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았다.

용해와 혼사, 조형, 주입, 사막 등 주물생산의 모든 공정들이 정보수단들에 의하여 자동화되는 공정의 생산계획은

주물품의 중량과 크기, 생산량에 따라 여러 체로 갈라져있었다.

마침 첫 조형호흡선에서 압축기본체주물작업이 한창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공정원 진인순동무가 호흡선의 동작원리를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이 호흡선은 혼사물공급과 조형작업, 쇄물주입, 사막 등 모든 공정이 최신과학기술로 장비된 고도로 현대화된 주물 생산공정이다. 혼사물의 계량과 혼합, 공기가 자동적으로 진행되고 지난 시기에 수많은 조형공들이 달려들어 진행하던 다직작업과 금형뽑기, 표면연조 등 여러가지 작업을 해당 설비들이 짧은 시간에 손쉽게 한다. 풀환전체도를 따라 주형틀이 움직이므로 쇄물주입작업이 매우 쉽고 안정하며 진동사라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주물품과 혼사물의 분리작업을 짧은 시간동안에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다.

호흡선의 이 모든 공정을 몇 명의 로동자들이 조종하고있었다. 손로동과 증량들을 다루던 힘은 로동은 영연히 사라지고 산뜻한 작업복을 입은 로동자들이 조종하는 단추를 누르면 주물품이 적적 생산되고있었다. 종전의 주물공정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최첨단 현실을 직접 목격하느니라 우리의 가슴은 흥분으로 끓어올랐다.

공장의 로동자들은 로동조건이 개선되어 로동이 그대로 기쁨이고 노래로 된 꿈 아닌 현실속에서 일하며 바로 여가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강성대국의 일터라고 격정을 터치었다.

동행한 부지배인은 이 조형 호흡선도 현대적인것이지만 그 열의 조형호흡선은 더욱 자랑할만한 한것이며 단지 2명의 로동자들이 호흡선의 조종실에서 전공정을 조종하는데 생산성도 매우 높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공장의 생산공정들을 돌아볼수록 우리의 감탄은 더해만 갔다. 현대적인 증추파유도로와 보온로를 갖춘 용해공정에서는 차가운 용해시간을 현저히 줄이면서도 고열로동이란 말을 모르는 용해공들의 이야기와 대열, 소형조형장에서는 모래공급, 혼사물공급이 자동적으로 진행되어 일손마다에 성수가 난다는 소형공들의 목소리가 가슴이 울려 퍼졌다. 사막장에 들어서면 종전에 많은 품을 들여야 했던 용해로동을 단 몇분사이에 깨끗하게 해결한다는 능률적인 설비의 동음이 유정한 노레소처럼 가락따라 울리고 현대적인 정보수단과 분석설비들이 들어찬 중앙조종실, 실험분석실은 마치 어느 경영공정에 들어선듯 한 느낌을 안겨주었다.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배일에 대한 관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선군주철공장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바라보게 달라진 기업소의 모습은 선군압축기직장에서도 볼수 있었다.

수많은 기계설비들이 들어찬 현장은 당창건 65돐을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한 로동자들의 증산열의로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수자표시장치를 설치한 선반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대형, 중형, 소형선반작업반의 기대공들이며 당의 크나큰 은성속에 마련된 최단수준의 수자식공작기계에서 정밀부속품가공에 열중하는 정밀가공작업반에서 전공정을 조종하는데 생산성도 매우 높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이 땅에 밟히고

동해지역에 일떠선 로동당시대의 창조물, 선군주철공장을 돌아본 성, 중앙기관의 일꾼들을 비롯한 수많은 참관자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높은 세계를 보려는 당의 구호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특히 자기 단위에 주물공정을 가지고있는 공장, 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이 공장의 전 반생산공정이 철저히 우리의 실정, 우리의 조건에 맞게 꾸려져있고 그 생산능력이 대단히 높으며 때때로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그렇다. 통성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성속에 마련된 이

없었다. 갖 조립을 시작한 압축기가 있는가 하면 완성단계에서 우뚝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압축기도 있었다. 그 모든 압축기들이 최첨단조선설비와 판공들에 보내줄것이라는 직감상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강성대국건설의 중요전선마다에서 울리는 드높은 혁신의 발파소리가 바로 이곳과 잇닿아 있다는 생각이 갈라졌다. 생산의 집중화원칙에 따라 압축기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이 직장이 생긴 때로부터 새 제품개발과 제품의 질제고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일어났다고 부지배인은 감히 넘쳐 말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선군시대에 더욱 튼튼해진 우리의 자립적기계공업태도에 대한 자부심을 자극한가 하면 언겨주는 대기계제작기지-통성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였다.

우리 실정에 맞게

주물공정을 철저히 우리 식의 창조물로 훌륭히 완성하였다.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도 철저히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바로 이것이 주물공정을 위한 기술과제서작성의 그 나날로부터 완공의 날까지 기업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마음속깊이 애간찬 과학신념이었다.

우리와 만난 기사장 지철동무는 기술과제서작성의 나날을 돌이켜보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 통성기계련합기업소에 현대적인 주물 생산기지를 꾸려놓아야 한다고 그 때 세워진 기업소가 부러움없이 모든 생산공정장비를 완비하는데 필요한 많은

이러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의 말씀을 전달받은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크나큰 격정에 목메이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해당 부문과의 긴밀한 령도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탐독하고 다른 단위에 새로 일떠선 주물품생산기지도 일일이 돌아볼수록 이곳 일꾼들과 기술자들의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현대적인 주물공정이 실지로 은을 내게 하자면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설계해야 한다는것이였다.

일꾼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의 대중적인 토기가 벌어졌다. 늘어나는 대상설비생산량과 그에 따르는 원료, 자체보장문제, 로동환경 등 모든것을 현대화의 요구에 맞으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 방도를 찾는것이 기본문제라 제기되었다. 모두의 두뇌가 발동되고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기술기능이 합쳐지는 과정에 대형 주물품과 소형주물품을 따로 생산하는 두개의 호흡선을 구성하는 문제가, 지난 시기의 생산과정에 파악이 있는 주물용 모래결합제를 리용하는 문제, 모래재생산을 보다 실리에 맞게 선정하는 문제 등 발전하는 현실과 기업소의 구체적조건을 반영한 가장 합리적인 안들이 제기되었다. 바로 그것이 그대로 새로 일떠서는 주물공정의 기술과제서에 반영된 사항이었다.

자기 땅에 밟히고 높은 세계를 보는 바로 이런 확고한 관념에 서있었기에 이곳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전방적생산공정을 완비하는데 필요한 많은

해 자립으로 더욱 위장찬란한 조국의 배일을 확신하며 구내 길에 나선 우리는 가슴이 펼쳐진 동해의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웅했다.

—통성이며, 대기계제작기지의 전변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정신을 세세년년 길이 빛내이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으로 마련해 주신 비약의 통마를 타고 강성대국건설투쟁의 앞장에서 걸음 같이 내달리라.

글 분사기자 김진수
분사기자 김병준
사진 분사기자 장영일



연 산 군 민 발 전 소 준 공

연산군민발전소 준공식이 18일에 진행되었다.

준공식에 최혜복 동무가 축사를 하고, 판공부문 일꾼들, 군민건설자들과 청년동맹원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연산군민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과 일꾼들, 근로자들에게 보내신 감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최혜복동무의 준공사에 이어 연산군민발전소건설현장 돌격대 정치부장 김철호, 군중

소형발전소운영 및 건설대책 임기시 리방남이 토론하였다.

그들은 건설자들과 연산군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발전소가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발전소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에 부합하고 고무된 건설자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공사에 서 커다란 위훈을 세운데 대하여 축하하였다.

특히 인민군인들은 어렵고

힘든 전투장마다에서 혁명군대의 전투적기질을 남김없이 떨치며 돌과구를 열어나갔다고 그들은 자랑하였다.

그들은 청년동맹원들이 수십만㎡에 달하는 굴착과 가물막이공사, 수만㎡의 콘크리트 타입 등 방대한 공사과제를 성파적으로 해체하고 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발전소와 함께 휴양소와 살림집들, 항숙, 염소목장과 수산업의 방목도, 양어못이 건설되었으며 10여만㎡의 나

무가 뿌리내려 주변의 풍치가 일신되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발전소건설을 강동수 령전합기업소, 삼원세멘트련합기업소,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현관단위의 로동자, 기술자, 설계가들이 적극 도와주었으며 군내 인민들이 불심판면으로 지원한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소를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품을 들인것만큼 높은 소출을 낸다

력포구역 소삼정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적적으로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결과 작업반들에서 나서는 방도를 밝혀주신 단위가였다.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남새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더 많은 남새를 생산하여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투쟁하고있는 이곳 농장일꾼들의 사업에 확실히 긍정할만한 경험 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업에서 혁명을 일으키자면 농업지도기관들과 농업부문 일꾼들의 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몇몇년 가을남새씨뿌리기를 앞둔 어느날이였다. 관리위원회에서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남새씨뿌리기에 들어가기 전에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보여주기사업에서는 무우씨뿌리기와 배추씨뿌리기를 최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와 씨뿌리기가 끝난 후 2비배관리를 내리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작업반초급일꾼들과 농장원들에게 배워 주었다.

그후 관리위원회에서는 일꾼들을 작업반들에 내려보내어 농장원들이 남새씨뿌리기를 잘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박천관 당조직에서

이 아로새겨진 영광의 땅이다.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우리 군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선관생산을 부쩍 늘여가는데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가자고 열렬히 호소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탄부들은 자기들의 어깨에 안간들의 주된용병감과 지방산업공들의 생산정성화문제가 실려있다는 자각을 가슴씩자게 느끼면서 선관생산을 부쩍 늘여가는데 힘써나갔다.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것은 작업반에서 선관생산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박천관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

나

이나 큰골피해 를 받는 일이 없게였다. 직속남새분조는 김춘호, 남새4작업반 조원숙 동무들이 3조로, 4모작을 하면서 해마다 많은 남새를 생산할수 있는것도 남새조건에 맞게 비배관리를 짜고드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이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남새농사를 잘하고있는 작업반들과 개별적인 초급일꾼, 농장원들을 적극 내세워주는 방침으로 관리위원회사업을 적극 안내해 주었다. 양수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정성적으로 보수정비하도록 하고 남새밭에 물을 넉넉히 댈수 있게 남새밭가까이에 만든 골포와 물줄도 류장복동무를 비롯한 리당일꾼들이 관리위원회사업을 적극 뒷받침하는 과정에 마련된 것이다.

농장에서는 남새밭의 지역을 높이는 사업도 놓치지 않았다. 농장에서는 작업반, 분조, 농장원세마다 퇴적층을 만들게 하고 여름에 배어있는 물을 거기에 넣고 트라ктор를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실어 들인 도시거름을 제취 충분히 섞인 풀거름을 다음해에 남새밭에 내도록 하였다.

품을 들인만큼 성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모든 일꾼들이 작업반, 분조를 맡고 남새가 남새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실속있게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신 정방당 남새소출을 높이지는것은 자명한 리치였다.

특파기자 최재남

2 번 에서 계속

이 전투를 조직한것은 7번에 이르는 사령부의 활동방향을 알리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면 소문이 사방에 퍼질것이고 그러면 사령부가 그곳에 나온것을 알고 찾아올것이라고 미리 예견하였던것이다.

그이께서 예견하신대로 오 중흥동지는 총소리를 듣고 대담 사령관동지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차리셨던것이다.

이것이 오지 사령관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상징적으로 과하며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에 철저히 의지하여 행동하는 그의 충직한 전사에게 있어서만 가능할것이다.

오중흥동지는 바로 이와 같이 뜨겁고 열렬한 혁명정신의 결실성을 지녔기에 분초를 다투는 심정으로 사령부를 찾아 린대의 행군을 다그치셨던것이다.

오중흥동지의 이 뜨거운 마음은 우리 모든 대원들의 심에도 통하여 전 대대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갔다.

마음을 끌고갈 때는 지치고 피로한데다가 이리 돌고 저리 빠지고 하느라고 달로나 기일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곧바로 내달리다같이 강령을 하여 단숨에 하강지 13구부근에 도착하였다.

그 즉시 마을에 정찰조를 파견하여 탐지하여본 결과 파견 《김일성장군님부대가 13도만을 찾다》는 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진행된 전투입이 틀림없었다. 행군은 그곳을 치고는 멀리 빠져나갔을 사령부를 속히 찾아

내야 했다.

오중흥동지는 한동안 생각 하고나서 다음과 같이 자기 감성을 말하였다.

《우리들이 근방에서 몇개 부락들 침사다. 그러면 사령부에서 우리가 이곳에 나온것을 알고 연락을 띄울것이지요.》

사실 그것은 이런 경우에 가장 빠른 연락방법이었던것이다. 우리 편에는 곧 2개 부락의 적을 습격하였다.

편대는 2개 대로 나누어서 하루밤에 13구부근의 2개 부락의 적정찰을 치고 많은 식량과 물자를 로획하였다. 그리고나서 우리는 그곳에서 얼마 많지 않은 수침속에 들어가 휴식하였다.

그들은 사령부통신원이 우리를 찾게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틀후에 사령부통신원을 만나게 되었다. 《사령관동지께서 안녕하시오?》

《사령부가 무사하오?》

우리는 모두 이우동성으로 이렇게 물었다.

사령관동지께서 여전히 건강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중흥동지는 통신원을 덤적 부둥켜안고 우리들 역시 환희와 감격을 겹잡을 길이 없어 서로 부둥켜안고 돌아갔다.

오중흥동지는 예속한대로 사령부에서 우리가 진행한 습격전투의 총소리를 들자 경찰조를 파견하여 알아보고 통신원을 파견하게 되었던것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이 편이 세곳에서 습격전투를 벌렸다는 소문이 인민들속에 널리 퍼졌다.

그것도 그렇듯이 적들이 거

우대 《김일성부대는 다 열어 졌다.》고 대적으로 기만 선전을 하여오던 때에 오히려 조선인민혁명군에 제물들의 뒤통수를 얻어맞았으니 인민들은 웅성웅성하고 적들은 당황失措할수밖에 없었다.

적들에게 있어서서 그야말로 맑은 하늘에서 벼락을 맞는 격이 되었다.

겨우내 깊은 눈구덩이속에서 죽을 고생을 다하며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하겠다고 떠다다던 놈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제물들의 후방이 련속 얻어맞으니 정신을 차릴수 없게 되었다.

우리들은 한시가 없을 마음으로 사령부가 있는 곳을 향하여 행군을 다그쳤다.

우리가 사령부의 속영지에 이르자 사령관동지께서는 마주나오시며 오중흥동지를 뜨겁게 품에 안으셨다.

오중흥동지의 두팔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해서 오 중흥동지의 등을 쓰다듬어주시면서 한동안 말씀을 나누시었다.

천리 위천만 길을 보낸 자식을 근심하시듯 지나가네 잊지 않았고 마음에 걸려온 사랑하는 편대를 맞은 그리의 심정이 얼마나 대견함과 기쁨에 넘쳐 있었나.

《수고로 했소.》

사령관동지께서는 이우고 우리 대원들 한사람한사람의 얼굴을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오중흥동지는 그제야 자제를 바로라고 그의 명령을 집행한 경위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동무들 장하오. 동무들이 아깝도 혁명의 영웅들이요.》

우리는 사령관동지의 파란한 치하에 그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지금도 고난의 행군을 회상할 때마다 그 자랑, 그 감격을 잊을수 없으며 사령부에 대한 오중흥동지의 충실성을 다시금 가슴깊이 느끼지 않을수 없다.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명령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곤란, 어떠한 파란목절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물러서지 않는 배후불굴의 혁명정신 그리고 그이께서 계시는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폭풍우에도 흔들림없이 견결하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싸우는 그 고결한 절개와 충성심, 오중흥동지가 지닌 이 혁명정신과 기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심장으로 과약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드는 데서만 가능하였던것이다.

우리들은 오 중흥동지의 모범을 본받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 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할것을 다짐하고 혁명화해나 했었다.

그러하여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대교를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조국통일의 혁명적투쟁을 맞이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것이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